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Job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of Working Mother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이선희(Sun-Hee Rhee)¹⁾

도현심(Hyun-Sim Doh)²⁾

ABSTRACT

A sample of 654 elementary school children (330 boys and 324 girls) and their mothers responded to three questionnaires regarding mother's job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Results showed that working mothers perceived themselves as more permissive/neglecting compared with non-working mothers. Children of working mothers perceived themselves as hyperactive, anxious, withdrawn, aggressive, and immature. Parenting of working mothers with higher job satisfaction was more warm/accepting; their daughters perceived themselves as less anxious, withdrawn, and immature than children of mothers with lower job satisfaction. Children of rejecting/restrictive working mothers, especially girls, reported hyperactive, withdrawn, aggressive, and immature behaviors. Children of permissive/neglecting working mothers were immature. Warm/accepting parenting of working mothers played mediating roles between their job satisfaction and maturity of their daughters' behavior.

Key Words : 직업만족도(job satisfaction), 취업모의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of working mothers), 아동문제행동(children's problem behavior).

I. 서 론

최근 들어 아동의 문제행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발현은 일종의 발달적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것으로, 유아기의 문제행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박사과정

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Rh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unheerhee@hanmail.net

동은 학령기의 또래거부나 학업 실패에 이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Patterson, Babara, DeBaryshe, & Ramsey, 1989). 이는 어린 시절의 문제행동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어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나 방치되는 경우 만성화되거나 보다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인간이 처음 태어나면서 접하는 가정환경을 꼽을 수 있다. 가정환경 요인 가운데도 부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주 양육자로 잘 알려진 어머니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어머니의 부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희수, 2003; 양경수, 2002). 즉, 취업모의 자녀들은 비취업모의 자녀들보다 의존성이 높고(Hoffman, 1974; McCord, 1963), 관심을 끄는 행동을 많이 하며(신혜정, 2000), 과잉행동(양경수, 2002)과 불안(김제한, 1978; 유영주, 1971)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아동발달과 관련시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아동의 학업성적이나 사회적 능력(곽정인, 1999; 김영재, 1994; 안유경, 1994)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나(이은수, 1985; Birnbaum, 1975), 그 결과는 비일관적인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온정적이며, 일관된 방식으로 양육한다는 연구결과들(Crockenberg & Litman, 1991; Gold, 1978)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들은 비취업모에 비해 더 거부적, 지배적이고, 덜 애정적이

며, 민감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들(우대식, 1992; 유영주, 1971; Easterbrooks & Goldberg, 1985)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발견되어(김윤숙, 1989),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기도 하였다(최수진, 2002).

위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과 양육행동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우대식, 1992; 유영주, 1971; Birnbaum, 1975; Crockenberg & Litman, 1991; Moore, 1964). 그러나 취업모의 여러 가지 취업 상황 중에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중시하였던 Hoffman(1974)이 지적하였듯이,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직업 유무의 측면에 더해 직업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태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직업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의 아동은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고, 신체적 자주성, 사회성,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이 가장 높았으며(전보운, 1990; Hoffman, 1961; Yarrow, Scott, DeLeeuw, & Heining, 1962), 아동의 학교적응도나 유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Wood, 1972). 반면, 근무시간이 길고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며 불안을 느끼는 어머니의 자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김미경 · 이숙현, 1990), 직업만족도가 낮은 어머니의 아들은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딸들은 특히 미성숙 행동을 많이 나타내었다(장경미, 1995).

어머니의 직업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된 기존 국외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여(Greenberger & Goldberg, 1989; Hoffman, 1961; Lerner &

Galambos, 1985), 대체적으로 자녀에게 덜 권위적이고(Greenberger & Goldberg, 1989), 자녀를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Lerner & Galambos, 1985), 어머니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arrow et al., 1962). 반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가책을 느끼고 아동을 과보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아동에게 소홀히 대하거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Hoffman, 1961; Lerner & Galambos, 1985).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주로 어머니의 직업유무 자체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어져 왔고(김윤숙, 1989; 안현숙, 2000; 우대식, 1992; 최정현, 2003; 함미영, 1992), 어머니의 직업만족도를 양육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이 상호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국외의 연구결과가 국내에서도 일관적으로 발견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잘 알려진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간의 밀접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취업모의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그 자녀는 문제행동을 덜 보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우대식, 1992). 예를 들어, 취업모가 애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은 어머니에 대해 신뢰감을 형성하며 나아가 사회적 적응을 잘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Steinberg, Elmen, & Mounts, 1989). 반면, 취업모가 권위·통제적이고 적대·거부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그 자녀들은 공격적 행동과 과잉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우대식, 1992).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고

찰해 보면,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모두 포함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양자간의 관계를 취업모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문제행동을 덜 보일 뿐만 아니라(전보윤, 1990; Hoffman, 1961; Yarrow et al., 1962), 어머니 스스로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노진아·이숙, 2003; 전보윤, 1990; Lerner & Galambos, 1988). 동시에 어머니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은 문제행동을 덜 보이기가 쉽다(우대식, 1992). 이처럼 세 변인간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에 근거할 때, 궁극적으로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행동이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취업모 자신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 또한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양자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한다(김민정, 2001; 김

선미, 2005; 하영희, 2003; 하지영, 2004). 예를 들면,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보인 부모의 딸들은 아들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하영희, 2003).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괴롭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양자간의 관계가 아동에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어머니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그들의 아들이 딸보다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김선미, 2005).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남아의 경우에만 불순응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반응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남아들은 여아에 비해 다른 성인들에게 보다 더 불순응적이었다(하지영,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직업 관련 변인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남녀 아동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이 남아와 여아 가운데 특히 어느 한 쪽 성의 문제행동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먼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다음,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취업모의 양육행동이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1.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2.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양육행동 및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1.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2.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3. 취업모의 양육행동은 남녀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4. 취업모의 양육행동은 직업만족도와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N구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 654명(남아 : 330명, 여아 : 324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이 중 취업모는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근무자로서 그들의 자녀는 212명(남아 : 104명, 여아 : 108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5, 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으로 선정 한 이유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비행으로 옮겨지는 시기가 청소년기임을 감안할 때(Patterson et al., 1989), 청소년 직전 시기인 아동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올바르게 지도한다는 예방적인 측면에 기인한다. 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50.8%와 46.5%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39.4%),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취업모는 전체의 32.4%에 해당되었다. 그 중 취

업도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35.8%로 가장 많았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는 아동 자신에 의해서 평가되었다.

1)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어머니의 직업만족도는 이제영(1988)의 직장생활만족도와 Kalleberg(1977)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만족도 문항내용을 참고하여 황현주(1993)가 직장인과의 면접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한 직업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총 17문항의 Likert식 척도이다. 본래 5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분명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직장에서의 업무가 흥미롭다', '직장 업무를 통해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용할 수 있다', '직장의 물리적 환경이 쾌적하다' 등이 포함되며,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82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박영애(1995)가 제작한 양육행동 척도를 김문정(200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 행동의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김문정(2003)은 하위요인별로 요인 부하량

이 높은 10문항씩을 선정하고 이를 재요인분석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총 30문항을 사용하여 문항 수를 줄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이를 기쁘게 해 줄 일들을 잘 생각해낸다', '쉬는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떤 것이든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만 두라고 한다' 등이,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아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 등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가운데 선택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의 양육태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각 요인별 Cronbach's α 는 온정·수용이 .83, 거부·제재가 .85, 허용·방임이 .74이었다.

3)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를 한미현(1995)이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미현(1996)은 우리나라 아동이 주로 보이는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5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요인별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된다. 본래 Likert식 3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분명한 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요인별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과잉 행동은 '유난히 목소리가 크다',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하다' 등으로, 불안 행동은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 한다', '수줍

음을 많이 타고 소심하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축 행동은 '형제나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 '위축되어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등으로, 공격 행동은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잘 낸다', '물건을 잘 부순다', 등으로, 미성숙 행동은 '어른에게 매달리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내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각 요인별 Cronbach's α 는 과잉 행동이 .70, 불안 행동이 .76, 위축 행동이 .73, 공격 행동이 .79, 미성숙 행동이 .68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6년 9월 중에 실시하였다. 서울 소재의 4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급 중 각 학년에서 3-4반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시의 주의점을 전달하였으며, 각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배부·실시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조사된 후, 담임교사를 통해 회수되었다. 배부된 936부의 설문지 중에서 864부가 회수되어 92%의 회수율을 보였고, 이 중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11부, 누락된 답이 많은 경우, 동일한 답을 연속해서 기재한 경우와 같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115부,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 이하인 취업모 84부를 제외하고

총 654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에서의 성차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양육행동 및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

1)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양육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t=3.98, p<.001$)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허용·

〈표 1〉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N=654)

어머니의 양육행동	전 체			남 아			여 아		
	취업모 비취업모		t	취업모 비취업모		t	취업모 비취업모		t
	M(SD)	M(SD)		M(SD)	M(SD)		M(SD)	M(SD)	
온정·수용	3.06(.38)	3.03(.37)	1.01	3.05(.36)	3.01(.37)	.93	3.07(.40)	3.05(.37)	.48
거부·제재	1.91(.41)	1.97(.42)	-1.55	1.95(.43)	1.99(.44)	-.59	1.87(.39)	1.95(.40)	-1.61
허용·방임	1.83(.33)	1.72(.33)	3.98***	1.84(.33)	1.70(.31)	3.63***	1.83(.33)	1.75(.34)	2.03*

* $p<.05$ *** $p<.001$

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을 때도 동일하여, 남아($t=3.63, p<.001$)와 여아($t=2.03, p<.05$) 모두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

2)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과잉 행동($t=2.73, p<.01$), 불안 행동($t=3.12, p<.01$), 위축 행동($t=2.90, p<.01$), 공격 행동($t=3.27, p<.01$), 미성숙 행동($t=2.55, p<.05$) 등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자녀는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스스로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위축 행동($t=2.92, 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취업모의 아들은 비취업모의 아들보다 자신이 위축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과잉 행동($t=3.74, p<.001$), 불안 행동($t=2.70, p<.01$), 공격 행동($t=3.49, p<.01$), 미성숙 행동($t=2.7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취업모의 딸은 비취업모의 딸보다 스스로 과잉 행동, 불안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여아의 위축 행동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표 2>.

2.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1)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취업모의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만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거부·제재,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는 양자간의 관계를 아동의 성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남아($r=.36, p<.001$)와 여아($r=.31, p<.01$) 모두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아들과 딸에게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하였다<표 3>.

<표 2>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 (N=654)

아동의 문제행동	전 체			남 아			여 아		
	취업모	비취업모	t	취업모	비취업모	t	취업모	비취업모	t
	M(SD)	M(SD)		M(SD)	M(SD)		M(SD)	M(SD)	
과잉 행동	2.42(.50)	2.30(.51)	2.73**	2.32(.49)	2.31(.52)	.15	2.52(.49)	2.30(.50)	3.74***
불안 행동	2.28(.55)	2.13(.57)	3.12**	2.22(.55)	2.10(.59)	1.69	2.35(.55)	2.17(.55)	2.70**
위축 행동	1.87(.51)	1.75(.47)	2.90**	1.88(.48)	1.72(.43)	2.92**	1.86(.54)	1.78(.50)	1.29
공격 행동	1.82(.54)	1.67(.48)	3.27**	1.81(.51)	1.74(.51)	1.17	1.82(.56)	1.60(.43)	3.49**
미성숙 행동	1.90(.46)	1.80(.45)	2.55*	1.86(.42)	1.82(.45)	.80	1.93(.48)	1.78(.45)	2.75**

* $p<.05$ ** $p<.01$ *** $p<.001$

〈표 3〉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N=212)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직업만족도	.33***	.36***	.31**	-.13	-.10	-.17	-.13	-.11	-.14

** $p < .01$ *** $p < .001$

2)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남녀 아동의 문제 행동간의 관계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미성숙 행동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양자간에는 대부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양자간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여아의 경우에는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여아의 불안 행동($r = -.23, p < .05$), 위축 행동($r = -.22, p < .05$), 미성숙 행동($r = -.20,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아는 자신이 불안 행동, 위축 행동, 미성숙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여아의 과잉 행동 및 공격 행동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표 4>.

3)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 행동간의 관계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에는 대체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취업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모든 문제

행동 요인들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과잉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성숙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양자간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취업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과잉 행동($r = -.19, p < .05$), 위축 행동($r = -.28, p < .01$), 공격 행동($r = -.35, p < .001$), 미성숙 행동($r = -.27,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온정·수용적인 취업모의 아들은 과잉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을 덜 한다고 지각하였다. 취업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위축 행동($r = .20,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거부·제재적인 취업모의 아들은 위축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취업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남아의 불안 행동,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과 남아의 과잉 행동, 불안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그리고 허용·방임적 양육 행동과 남아의 모든 문제행동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취업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과잉 행동($r = -.23, p < .05$), 위축 행동($r = -.27,$

〈표 4〉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N=212)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직업 만족도	.03	.04	.04	-.12	-.00	-.23*	-.12	-.01	-.22*	-.04	.05	-.13	-.16*	-.12	-.20*

* $p < .05$

〈표 5〉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N=212)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온정·수용	-.20**	-.19*	-.23*	-.18*	-.18	-.18	-.28***	-.28**	-.27**	-.28***	-.35***	-.22*	-.30***	-.27**	-.31**
거부·제재	.15*	.11	.24*	.09	.09	.11	.25**	.20*	.30**	.22**	.19	.26**	.22**	.11	.34***
허용·방임	.05	-.03	.14	.13	.14	.13	.07	.12	.03	.08	.05	.10	.21**	.13	.28**

* $p < .05$ ** $p < .01$ *** $p < .001$

$p < .01$), 공격 행동($r = -.22, p < .05$), 미성숙 행동($r = -.31,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온정·수용적인 취업모의 딸은 과잉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을 덜 한다고 지각하였다. 취업모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여아의 과잉 행동($r = .24, p < .05$), 위축 행동($r = .30, p < .01$), 공격 행동($r = .26, p < .01$), 미성숙 행동($r = .34,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거부·제재적인 취업모의 딸은 과잉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취업모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여아의 미성숙 행동($r = .28,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허용·방임적인 취업모의 딸은 미성숙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취업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여아의 불안 행동,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여아의 불안 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여아의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5>.

4)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남녀 아동의 문제 행동간의 관계에서 취업모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단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에 의하면, 매개적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각 변인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 기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총 세 가지였다. 즉, 전체 아동의 경우,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미숙 행동간의 관계만이, 그리고 여아의 경우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및 위축 행동간의 관계와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및 미성숙행동간의 관계만이 이에 해당되었다. 남아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되지 않았다.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두 번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세 번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회귀식에 포함되는 독립변인간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그 값이 .10~.36으로 분포되고 있어 Berry와 Feldman(1990)이 제시한 다중공선성 검증 기준($r < .8$)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양육행동 및 남녀 전체

〈표 6〉 전체 아동의 미성숙 행동에 대한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의 회귀분석(β)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온정·수용	미성숙 행동	미성숙 행동
직업만족도	.33***	-.16*	-.08
온정·수용			-.27***
R ²	.11	.02	.09
F	25.66***	5.72*	10.25***

* $p < .05$ *** $p < .001$

아동의 미성숙 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직업만족도와 취업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직업만족도는 아동의 미성숙 행동에 더 이상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16, p < .05 \rightarrow ns$). 즉, 취업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미성숙 행동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표 6>.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은 여아의 경우에만 발견되어, 여아의 위축 행동에 미치는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의 영향력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완전히 사라져($\beta = -.22, p < .05 \rightarrow ns$)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표 7>. 또한,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양육행동 및 여아가 지각한 미성숙 행동간의 관계의 경우에서도, 직업만족도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직업만족도는 여아의 미성숙

〈표 7〉 여아의 위축 행동에 대한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의 회귀분석(β)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온정·수용	위축 행동	위축 행동
직업만족도	.31***	-.22*	-.15
온정·수용			-.22*
R ²	.10	.05	.10
F	11.16**	5.37*	5.38**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여아의 미성숙 행동에 대한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의 회귀분석(β)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온정·수용	미성숙 행동	미성숙 행동
직업만족도	.31*	-.20*	-.11
온정·수용			-.28**
R ²	.10	.04	.11
F	11.16**	4.18*	6.29**

* $p < .05$ ** $p < .01$

행동에 더 이상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beta = -.20, p < .05 \rightarrow ns$)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양자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표 8>.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서 자녀에게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모가 자녀에게 관대함이나(노현정, 2003), 방임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김경은, 2003)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취업모들이 평소 아이에게 잘해주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여 더 관대한 행동을 보여주고, 짧은 시간에 부족한 애정을 보충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 여겨진다. 또한 직장생활로 인해 전업주부들에 비해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이를 방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만 혼자 집에 두거나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아동 학대 행위로 간주하여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 견주어 볼 때, 우리사회에서도 이에 관한 취업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반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직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온정·합리적 지도(김정희·문혁준, 2006)나, 애정-적대적인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최정현, 2003)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직업유무 외의 또 다른 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육행동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남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유사하게 발견되어, 양자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은 유의미한 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동 문제행동의 차이에 있어서, 취업모의 자녀는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자신이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더 충동적이며 사회성 및 적응성이 부족하고 정서적 안정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제현, 1978)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와의 대화와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정신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쉽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점(Hamner & Turner, 2001)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동 자신이 지각하는 문제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보고된 점은 매우 돋보인다. 즉, 남아는 위축 행동에서, 여아는 과잉, 불안, 공격, 미성숙행동에서, 취업모의 자녀들이 비취업모들의 자녀들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한다고 지각함으로써, 취업모의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취업모의 남아들이 위축 행동을 보인 것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도 있다. 또한 취업모의 딸들이 아들들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동성 부모-자녀관계, 즉 모녀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친밀함과 갈등 수준이 모두 높고, 공유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서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Steinberg, 1987). 게다가, 초등학교 5-6학년생인 본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제 막 사춘기에 진입하는 시점에 있는 여아는 아직 사춘기에 들어서지 않은 남아에 비해 더 민감한 시기를 보내기 쉽고 동시에 동성인 어머니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녀간에 같이 있는 시간과 대화를 많이 필요로 하기 쉽다. 그러나 취업모의 딸들은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빈곤을 느끼기 쉬워 남아에 비해서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취업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들은 자신이 직업에 만족할수록 자녀를 온정·수용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에 만족하는 취업모가 자녀에게 보다 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

인다는 연구결과들(김윤숙, 1989; 노진아·이숙, 2003; 안재연, 1992; Lerner & Galambos, 1985)과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함으로써 심리적으로 평안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해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은 취업모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가치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관한 자아가치 같은 포괄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거부·제재,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불만족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결과(전보윤, 1990)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는 취업모의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은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이외의 또 다른 선행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양육행동으로 여겨진다. 취업모의 직업만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직업만족도에 따라서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하지 않음을 반영한다.

넷째,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만족도는 아동의 미성숙 행동을 제외한 다른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데 반해, 어머니의 직업만족도는 여아의 불안 행동, 위축 행동, 미성숙 행동과 부적관계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아는 자신이 불안 행동, 위축 행동, 미성숙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직업만족도는 여아의 문제행동과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만족도가 낮은 어머니의 자녀 중 딸들이 미성숙 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장경미, 199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이처럼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여아만이 유의한 관계를 보인 이유는 딸들이 아들에 비하여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취업모의 딸들이 아들에 비해서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인 모녀관계적 측면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가 온정·수용적일 때 자녀는 과잉, 불안, 위축, 공격, 미성숙 행동을 적게 하고, 거부·제재적일 때 스스로 과잉, 위축, 공격, 미성숙 행동을 많이 하며, 허용·방임적일 때 미성숙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결과들(안유경, 1994; 주동범, 2002; 최정현, 2003)과 마찬가지로 취업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아와 달리 여아의 경우에만 취업모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는 과잉 행동, 공격행동, 미성숙 행동을,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에는 미성숙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반면에, 취업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 문제행동간의 관계는 남아와 여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의 진입이 남아에 비해 2년 정도 앞선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의 본 연구 대상 여아들은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양육행동이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아동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 본 결과 몇몇 관계에서 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취업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남녀 전체 아동의 미성숙 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나, 성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이는 여아의 경우에서만 발견되었다. 또한, 취업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직업만족도와 여아의 위축 행동간의 관계에서도 매개적 역할을 하여, 어머니의 직업만족도는 양육행동을 통해 여아의 위축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높으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에 일치한다. 반면, 취업모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은 남아의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가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덜 밀접한 것으로 발견된 본 연구결과와 관련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차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서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취업모의 양육행동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하승민, 1983; 한종혜, 1980)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발견된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이 매개적 역할을 하기 보다는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그 자녀의 문제행동간의 밀접한

관계는 굳이 취업모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련성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이 드물게 발견된 점은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취업유무나 직업만족도 모두 남아에 비해 여아의 문제행동과 상대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취업모의 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버지의 직업유무나 직업만족도와 아동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못하였다. 아동의 인성발달 및 사회적응 기술 개발에 아버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남현미, 1999)에서와 같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넓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업관련 변인으로 어머니의 직업만족도만을 고려하여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취업모들은 근무시간, 취업시기, 직업의 안정성 등 매우 다양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요인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와 아동발달 환경은 영향을 받게 된다(임미리, 1997).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이외에 근무시간, 취업에 대한 태도, 직업으로 인한 긴장, 직업적 지위 등 다양한 직업변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보다 복합적 영향력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정인(1999).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망과 부모역할만족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03). 취업모의 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 이숙현(1990).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1(2), 98-113.
- 김민정(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재(1994).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자녀의 자아개념, 학업성취와의 관계.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숙(1989).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 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1), 115-129.
- 김재한(1978).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수(2003). 부모의 맞벌이여부가 초등학교 자녀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진아 · 이숙(2003).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한국가정학회지**, 6(1), 81-93.
- 노현정(2003). 취업모와 비취업모간의 양육외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정(2000).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유경(1994).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숙(2000).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교육학회지**, 9(1), 93-102.
- 양경수(2002).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학회지**, 11(2), 87-98.
- 우대식(199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71).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영(1988).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갈등, 만족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리(1997).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정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미(1995). 취업모의 취업경험과 자녀의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보운(1990).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만족도가 아동 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동범(2002).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지각된 양육방식이 초기 청소년의 자기통제 및 자아개념에 미치

- 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지**, 9(2), 23-43.
- 최수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현(200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승민(1983). 어머니 성역할 태도와 자녀양육 가치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하지영(200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이 남녀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미영(1992). 취업모와 일반모의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주(1993). 맞벌이 부부의 직장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역할전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erry, W. D., & Feldman, S. (1990).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
- Birbaum, J. A. (1975). Life patterns and self-esteem in gifted family oriented and career committed woman. In M. S. Mednick, S. S. Tangri, & L. W. Hoffman(Eds.), *Woman and achievement*, Washington, D. C : Hemisphere.
- Crockenberg, S., & Litman, C. (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maternal and two-year-old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5), 930-953.
-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 (1985).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toddlers, mothers, and fa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774-783.
- Gold, D. (1978). Developmental comparisons between 10-years-old children wi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Child Development*, 49(1), 75-84.
- Greenberger, E., & Goldberg, W. A. (1989). Work, parenting and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2-35.
- Hamner, T., & Turner, P. (2001)(4th ed.).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Englewood Cliff, NJ : Prentice Hall.
- Hoffman, L. W. (196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Child Development*, 32(1), 187-197.
- Hoffman, L. W. (1974).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 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 Psychology*, 10(2), 204-228.
- Kalleberg, A. L. (1977). Work values and job rewards :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Feb, 124-143.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McCord, J. (1963).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lower-class boy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7-81.
- Moore, T. W. (1964). Children of full-time and part-time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2, 1-10.
- Patterson, G. R., Babara, D., Debaryshe,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Steinberg, L. (1987). The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 Effects of pubertal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51-460.
- Steinberg, L., Elmen., J., & Mounts, N.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

- 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6), 1424-1436.
- Wood (1972).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6, 14-25.
- Yarrow, M. R., Scott, P., DeLeeuw, L., & Heining, C. (1962). Child rearing in families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Sociometry*, 25, 121-140.

2007년 6월 30일 투고 : 2007년 9월 28일 채택